



鄭 東 哲

가학증(加虐症)

경복궁 경회루에 올라 앉아 수천명 기생이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론 양이 차지 않았다. 창의문밖 탕춘대에서 흥청들을 발가벗겨 물속에 난무하게 하고 그

육체를 바라보며 또한 마장(馬場)안에 암놈과 숫놈을 집어넣어 소리져르고 날뛰며 교접하는 말들을 보고 만족해 하는 번태의 주인공, 그는 그것도 부족하여 기녀들을 나체로

만들어 말 시늉을 시켜 흥분하곤 했다. 그뿐인가, 비구니를 농락하고 삼천궁녀에 진력이 나 사대부의 여자를 탄하더니 굽기야 력도와 주문을 퍼뜨린 호색의 폭군, 그의 이름은 바로 연산군이다. 더욱 어머니 윤씨의 폐위·사사(賜死)가 밝혀진 후 숙의(淑儀)들을 뜰에서 박살하고 그 소생의 왕자를 같이 죽이며, 할머니 인수대비를 받아 치사케 했다. 윤씨 폐사에 동조한 조신(朝臣)의 시체를 파내어 뼈를 갈아 없앤 그 잔학성은 무오사화를 뺄 정도였다. 그리곤 조금이라도 옳은 말을 할라치면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자기몸을 찌르는 칼과 같도다.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말라」고 승명비(承命牌)를 허리에 차게 했던 것이다.

성적 변태와 가학은 결국 나이 30에 폐위, 병물되는 운명을 걸게 되고 말았지만 도대체 그 사연이 무슨 연유로해서 그토록 끔찍한 연출을 하게 되었을까?

가학증은 성적쾌감을 이성학대로서 대치하여 얻어내는 경우를 말한다. 불란서 작가 사드(Marquis de Sade 1740—1814)의 이상(異常)적인 성적 묘사에서 유래된 사디즘(Sadism)은 그 가학성이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작중 주인공은 수많은 결혼생활을 통해 난폭한 행동으로 창녀촌에 강금도 되며, 가계

집 부인을 피어내어 권총을 드리메고 채찍질을 하고, 처제와 눈이 맞아 달아나는가 하면,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음제를 먹고 심지어 여자를 방에 가두어 혈관을 찌르며 전신에 칼자국을 내면서 통쾌함을 맛보았다. 물론 주인공의 성적 쾌감은 성교가 아닌 바로 이런 가학성에 있기 때문에 도착증의 형태라고 결론짓게 된다.

최근 불란서 영화 「O양의 이야기」란 것이 이 가학적 심층심리를 묘사한 것이라하여 떠들석한데, 우리의 생활속에 추측이상의 많은 사례를 경험하게 되니 그것은 과연 연산군의 후예라서일까? 어떻게 해서던지 아내를 완력과 비수수단으로 난폭하게 육박지르는 폭군이 얼마나 많은지? 게다가 아내를 석녀(石女)로 만들만큼 제구실도 다 못하는 주제에 말이다. 다행히 여인의 피가학이 겹드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없지않지만 거기서 끝이지 않는 더 진보된 증상으로서의 이행을 생각한다면 치료가 없어선 안될 일임에 틀림없다.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성이 증오의 대상으로 교육됐을 때이다. 그러므로 성적 행위가 받아드려지지 않기때문에 챔피언스런 행위를 하는 아내에게 난폭한 벌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거세불안 때문이다. 상대보다 약하다고 생

딸꾹질의 원인과 치료

공복이나 위염, 소화 장애 등에 의한 것도 있으나 더욱 무거운병, 이를테면 알코올중독, 급성 위확장, 복막염, 뇌염, 뇌종양, 요독증 등에 의한 경우도 있다. 중증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계속되는 딸꾹질은 피로와 통증 때문에 정신쇠약이 더해져서 죽음을 재촉하는 결

과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며 식후에 속었다든가 갑자기 심호흡을 한 순간에 일어나거나 하지만 쉽게 낫는다.

치료법으로는 심호흡을 되풀이한다음 숨을 들이마서 복근을 긴장시켜서 될 수 있는대로 오래 견딘다. 얼음물을 먹는

다. 限球위를 압박한다. 인공적으로 토하게 한다. 횡경막신경을 경부에서 압박한다등의 방법이 있으나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환부측의 횡경막신경을 마취약 주사로 마비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원인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령 급성위확장일 때는 위세척)를 한다. 또한 원인이 중한병이면 그병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자되는 한 그의 가학적 행동은 계속된다. 셋째, 부모에 대한 억압된 적개심이 전도표출되어 나타나는 경우다.

호색의 아버지 성종(成宗)이 절세가인 윤씨를 얻어 연산의 나이 4살에 사약을 내리니 그 적개심과 어머니의 상(像)을 쫓아 헤메는 심정은 한편 이해할 만도 하다. 부왕이 사랑하며 방목하던 사슴을 죽이고 백모와 추문을 남긴것은 따라서 그런 적개심과 살부원모(殺父願母)의 에디프스감정을 재현하고 있는 결과였을 것이다. 고려 공민왕의 필생작 노국공주의 화상을 침실에 걸어놓고 장복수에서, 삼천궁녀에서, 그리고 근친백모에서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헤메는 끈질긴 추적이 계속된 셈이다. 여기 정상적인 사랑의 성희가 있을리가 없었던 것이다.

매리고, 꼬집고, 물고, 채적하는 것이 대표적 가학자의 행동이지만 말로 할 때는 빈정대고, 얕잡아 말하며, 위협하고, 치분거리며 들들 볶아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대부분의 성도착증은 남자에 많은데 그 공격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공격성이 무의식적 표현에 의하므로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해당된 뜻을 자신이 알수 없게 행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경희의대외래교수·정신과 전문의·의박>